



국내 유일의 '죽보 있는 서체' 탄생을 알리는 전주완판본체 탄생 선포식이 6일 국립유형유산원 대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오평근 행정위원장과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이, 김순정·김진욱·박병술·김은영 시의원, 송성환 도의원, 김동식 선자장을 비롯한 무형문화재, 이원필 (주)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과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글 관련 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내 유일 '죽보 있는 서체' ... 전주완판본체 탄생 선포식

목판에 잠든 글꼴, 다시 깨어났다

아이디어에 초점 맞춘 기존 서체와 달리 완판본 날날이 분석·해체해 새롭게 조합 '한컴오피스 NEO' 기본서체 탑재 결정 고어체 완벽 구현... 한글 고어체 새 지평

국내 유일의 '죽보 있는 서체' 탄생을 알리는 선포식이 6일 국립유형유산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전주완판본체는 과거 목판 글꼴이 가진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구현한 서체로, '전주완판본'이라는 뚜렷한 뿌리를 가진 서체여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간 지자체에서 개발한 다양한 서체가 있지만, 대부분 글꼴 디자이너에 의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 활용도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다르게 전주완판본체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도시, 조선 후기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출판문화 거점도시로라는 전주의 역사성을 담은 서체로, 완판본을 날날이 분석하고 해체해 새롭게 조합한 뿌리 깊은 서체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오평근 행정위원장과 이

기동 문화경제위원장이, 김순정·김진욱·박병술·김은영 시의원, 송성환 도의원, 김동식 선자장을 비롯한 무형문화재, 이원필 (주)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과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글 관련 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전주완판본체는 지난 2014년 1월 사회적기업 '마당'이 개발한 서체로, 전주의 대표적인 출판문화유산인 완판본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아름다운 목판 글꼴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완판본 마당체'라는 이름으로 개발해 유료로 보급해왔다. 이를 전주시가 다시 6종의 세분화된 서체로 확대해 개발하고 5,560자의 고어를 추가해 '전주의 뿌리를 간직한 전주완판본체'로 명명해 지난 4월 개발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출판물에

이름 붙여진 '완판본'은 조형적 아름다움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글꼴로, 300여 년 전 목판 속에 잠들어 있던 완판본 글자에 생명을 불어넣고 디지털화했다는 데 이번 개발의 큰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 장인들은 목판에 한글을 새기고 이를 다시 종이에 찍어내어 한글의 대중화, 문화의 보편화에 기여했는데, 후손들이 이를 이어받아 컴퓨터 서체로 개발·보급함으로써 뿌리를 잇고 복원하는 '법고창신'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의미가 깊고 잘 만들어진 글꼴이라 할지라도 널리 쓰이지 않으면 개발의 의의와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만큼, 그간 전주시는 전주완판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주)한글과컴퓨터, 한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 한글의 디지털화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계승하는데 앞장서 온 한컴은 전주완판본체의 의미와 가치에 공감해 '한컴오피스 NEO' 프로그램 기본서체에 탑재를 결정했으며, 한글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보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개발된 전주완판본체는 현대

한글 1만1,172자, 영문 및 기본기호 94자, KS용 기본기호 1,000여자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2,350자로 구성된 조화로운 글자 숲을 구현해냈고, 완판본 글꼴이 가진 고전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배가할 수 있는 고어 제작에 착수해 전주완판본 고어체 5,560자를 추가로 개발했다. 특히 고어체 구현에 있어서 기존 서체가 명조, 고딕의 글꼴 형태로만 표시되는데 반해 전주완판본 고어체는 전주완판본체로 온전히 구현되는 최초의 글꼴로서 한글 고어체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승수 시장은 "완판본은 전주의 정신과 뿌리를 담고 있는 독보적인 서체로 다른 지역은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영역"이라며 "고어와 영문 글꼴까지 개발된 만큼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전주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전주완판본체를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경찰청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전북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가속도'

전주시, 맞춤형 인재양성 등 후속대응 나서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 마련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주문에 따라 현실화됨에 따라, 법제화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기 위함이다. 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를 이뤄내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확대, 맞춤형 인재양성 등 본격적인 후속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그간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약속과 법제화 관련 발언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실업과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선결 조건인 맞춤형 인력양성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내 대학총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채용 방안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법제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도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본 취지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외면한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지역의 대학과 인재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이전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일궈내는 일"이라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서 6억대 배상 받는다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54·시진)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준호)는 6일 강씨와 그의 가족 5명과 함께 국가 등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8800만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필적을 감



정한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은 필적 감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라며 "이 필적감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는 잘못된 필적감정으로 위요 판결을 받아 구금된 뒤 풀려났다"라며 "석방된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사회 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는 유서를 대필했다는 오명을 쓰고 오랜 시간 살아야만 했다"라며 "인적사항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10대 전주시의회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 시민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발청인내 230-3713)

전주시의회

http://council.jeonju.go.kr

〈총 의정팀장: 230-3710, 의사팀장: 230-3720, 홍보팀장: 230-3730〉

